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201-22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원불교와 대학의 교양교육

- 원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김 귀 성

(원광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대학에서 교양교육과 종교교육의 현황 그리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원광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교과목의 사례분석을 통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적은 전공의 기초도야, 균형있는 전인적 인격도야, 그리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라는 목적 아래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선택이수배분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교양교육목표의 명료화, 대학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교양과목의 개발, 지원체제 확립, 등이 요청된다.

둘째, 종교적 배경을 지닌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교육은 대체로 특정 종교적 배경아래 필수와 선택과목을 공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광대학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임에 비해 시간강사의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교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강의평가를 통하여 확인된 바로는 필수과목에 비해 선택과목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이론보다 실천위주의 접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시사하는바가 크다. 다만,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그 밖에 대학에서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점을 제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육의 이념과 현실간의 갈등이다. 둘째, 대학에서 종교교육과 종교교화간의 논쟁이다. 셋째, 종교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이다.

핵심주제어: 원불교, 교양과목, 종교와 원불교, 인성교육

《Abstract》

**Wonbuddhism and Cultural Studies
of the University Education**

Kim, Kwi-Sung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how the Cultural studies in Universities of Korea and especially Religious Education as a Cultural studies are carried out and present the way how to resolve the tasks concerning on that. The results are as followes.

First, The aim of cultural studies in Universities of Korea is a basic course for majors, to cultivate the whole man education and to help students active adjustment in social change. Under the such a purpose, which subjects divided into obligation and options. In short those subjects operated the Optional distribution system. To develop the Cultural studies in Universities of Korea, clear the purpose of that subjects, develop the new subjects which is more creative, self controlled, relevant for their university and need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Second, It appeared that in Universities established by the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as a Cultural studies are operated both obligation and options.

Third. In the case study of Wonkwang University established by Wonbuddhism, It appeared that Religious Education as a Cultural studies more depend upon instructors than professors, need to develop the various textbooks include the teaching materials. According to the results by the students evaluation for the teaching-instruction on that subject, also appeared that students more responded on the optional subjects than obligation. The reason to got such an output was more depended on practical approach than theocratical give us an serious implication. However it need to research how the reason why. Finally I'd like to presents some issues on Religious education in University as followes. We have to consider the conflicts between ideology and practical perspectives on Religious education in University, conflicts between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us indoctrin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in University and finally, more concrete concern on how to teach those subjects etc.

Key Words: Wonbuddhism, Cultural Studies, Religion and Wonbuddhism, Education of Human Nature.

I. 이끄는 말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역사는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과연 교양교육을 어떻게 개념화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따라 교양교육의 성격이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구라파의 자유교양 교육의 성격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실용적인 성향의 교양과목을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원만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폭 넓은 일반교육이 요청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만큼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취하고 있어 교양교육에 대한 합의된 의미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교양과목이 어떤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면서도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써 “종교교육”을 어떤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확인 정리하는 일은 또 다른 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사립대학 중 종교적 배경을 가진 대학들은 대부분이 종교교과목을 교핵과목의 성격을 띤 교양과목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지하듯 우리 한국사회는 다종교 문화사회이다. 따라서 어느 대학이든 종교적 설립 배경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입학하여 수학할 기회를 개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교핵과목으로 교양과목인 “종교”교과를 운영하는데 이런 사회문화적 특성을 외면할 수 없는 부담이 있다. 자칫 특정 종교만을 고집한 종교교육은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교과목을 운영하다 보면 세속화니 무정체성이니 하는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정 종교 입장을 떠나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문제는 특정 종교입장에서 접근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에게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건전한 종교관, 내지는 종교적 심성을 갖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관련 교양과목이 어떤 목적에서 무슨 내용과 방법으로 전개되는가?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동안 대학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한내창(1997), 김종서(1990), 정진홍(1990), 우준관(1984) 등의 몇 편 논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사회화, 내지는 공교육체제하의 넓은 의미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불교에서 설립 운영하는 교립대학 중의 하나인 원광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과목의 개설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목에 대한 운영현황과 아울러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교육이란 종교교육자 양성을 위한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보다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으로 제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II.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

교양교육의 역사를 소급하자면 고대 그리스교육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된 것은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다. liberal education의 어원이 시사하듯이 교양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 19세기 무렵 유럽의 자유교육이 미국에서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어 양자간의 의미의 한계를 명료히 하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니다. 물론 그 핵심은 자유로운 마음의 획득을 위한 이성의 계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교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교육은 실용적, 상황적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인간문제와 관심에 학제간적 접근을 하는 것¹⁾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은 학습의 통합, 즉 전공교육의 단절과 세분화를 극복하고 더 폭넓은 시각과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게 하면 타 분야와 상호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 비록 시대상황에 따라 교양교육이 함의하는 바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인간의 자유를 구사할 수 있는 이성의 계발과 전인적 인간개발이라는 의미로 집약될

1 최대권, 『대학 학부 교육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1996, 2쪽.

2 위 논문, 3쪽.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인간과 자연 사회 삶에 대한 학문적 인식이나 사고방식과 풍부한 교양을 몸에 지니게 해서 인간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참다운 인간성장 발전이라는 목적 자체이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따라서 교양교육은 전문적 능력과 인격적 성장이 통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노력이 될 것이다.³⁾

그러면 우리 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교양교육의 목적부터 살펴보기 위해 한국 주요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폭넓은 분야에 대한 기초적 및 학제적 접근을 위하여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논리적 분석 및 표현, 합리적 판단능력 및 객관적 성찰과 민주시민의 전인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전공과정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보충하여 이를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둔다(경희대학교).

폭넓은 교양습득과정으로 통하여 전공에 앞서 인의예지를 갖춘 인간상형성을 목적으로 지도적 인격도야에 필요한 과목을 개설 운용한다(국민대학교).

교양공통과목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정치한 응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도구 과목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초필수과목은 해당 전공이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부산대학교).

다양한 학문의 발전추세 및 사회적 여건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지식추구를 하는 방향, 학생들의 균형있는 교양인 육성,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력과 창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용적 과목들로 구성한다(청주대학교).

전공과정을 이수함에 앞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익힘과 동시에 전인적 인격도야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강남대학교).

1)지정의를 균형 있게 갖춘 주제적인 인격형성 2) 적성, 능력, 흥미를 계발하여 자기 이해 증진 3) 남과 더불어 사는 태도 기능계발 4)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5) 논리적 사고능력과 가치판단 비판정신 함양 6) 기초학문분야의 개념적 틀에 대한 이해 7) 전문분야의 학습과 연구를 위한 도구적 기능 개발(연세대학

3 이돈희, 「교양교육의 이념과 목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22, 1986.7, 15쪽.

교).

대학생으로서 일반교양교육, 학문과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 등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양필수는 신앙인 양성, 자주적 국가관을 갖춘, 세계인으로서 기본자질 함양(목원대학교).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명목적 목적은 대학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전공의 기초도야, 균형 있는 전인적 인격을 갖춘 교양인의 양성, 그리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라는 실용적 교육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명시적 목적과 구체적인 교과과정 구성간에 어떤 연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나라 대학들의 교양교육이 목적 따로 실제 교과목 운영 따로 라고 지적되는 면도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의 교양교육은 다소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대체로 다음 몇 가지 영역의 범주를 크게 벗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의 성격, 학문발전추세 및 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이에 적응력을 목적으로 한 교양교과의 성격, 그리고 대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동국대학교, 2000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그 밖에 전인적 인격도야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과 가치관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강남대, 교양교육과정) 등이 그것이다. 이런 목적을 전제로 다양한 각 영역별 교양선택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아래 실시되고 있는 한국 주요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주요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

구분	대학교(연도)	교양이수학점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영역/ 과목수	비 고
국립	서울대('97)	36- 46	1- 9과목/ 3- 26학점	8개영역/ 533과목	
	전남대('00)	24- 39	4과목/ 12학점이상	8개영역	
	부산대('00)	38- 42	4과목/ 8학점이상	7개영역/ 127과목	
	충북대('00)	30	2과목/ 4학점	7개영역/ 153과목	
	경북대('00)	30	4과목/ 12학점이상	8개영역	
	공주대('00)	30	/ 10학점	6개영역	
	강원대('00)	45	/ 12학점	8개영역	
	가톨릭대('00)		/ 23- 25학점	7개영역	
사립	영남대('00)	31- 40	4과목/ 14학점	9개영역/ 203과목	
	조선대('00)	28	2과목/ 4학점	8개영역/ 139과목	
	고려대('00)	37	5과목/ 25학점	9개영역/ 380과목	
	연세대('99)	20	4과목/ 12학점	12개영역/ 182과목	
	숭실대('00)	25	7과목/ 10학점	7개영역/ 131과목	
	계명대('00)	34	2과목/ 4학점	13개영역/	
	대진대('96)	42	5과목/ 19학점		
	동국대('00)	10- 21	10과목/	6개영역/	
	숙명여대('00)	30	/ 14학점		

* 자료출처: 국립사대학장협의회 정책연구팀, 『국립사범대학 표준교육과정』, 2000 ;
각 대학의 요람 및 교육과정 참조.

이성호의 연구⁴⁾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은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개론과목은 각 전공과목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과목으로 각 학문영역마다 입문과목성격을 띤 교양과목은 이런 부류에 속한다. 둘째, 도구과목으로서 교양과목은 외국어나 수학, 물리, 등과 같은 기초입문과목으로서 대체로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셋째, 교착과목으로 각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교육철학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들이다. 이를테면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 운영하는 대학은 기독교의 이해를, 불교의 경우는 불교의 이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일반 교양 또는 문화적 이해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들이 있다. 다섯째, 특정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학문 분야의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교과목들이 있다. 이를테면 엔지니어링윤리, 정보윤리, 생

4 이성호,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59, 1992, 54-55쪽.

명윤리, 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과목의 이수모형은 교양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선택 배분이수제도 또는 분산이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선택 배분이수제란 무엇인가? 대학마다 교양의 필수나 선택 영역의 구분에 차이가 있지만, 5-9개영역의 선택과목 영역을 정해놓고 각 계열마다 1-2과목씩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역별 교양선택은 전공과목과는 달리 운영되지만, 대부분이 특정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핵교육과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과목의 특성이나 학제간 통합적인 성격을 찾아보기 어렵고 각 학문영역별로 고루 접해볼 수 있는 기회제공의 배분원리에 충실한 편이기 때문이다.

교양과목에서 “분산이수과정”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이수과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본래 취지인 포괄적인 기초교육을 받게 한다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2) 수강자의 선택권이 늘어남에 따라 수강생확보를 위해 학과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3) 학생들이 읽어야 할 참고문헌, 숙제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며 4) 학부생들에게 어떤 공통적이고 균형 잡힌 교양교육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⁵⁾.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과목 운영에 문제점으로는 1) 교양교육에 대한 일관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모호하다⁶⁾. 인간다운 전인적 존재로서 지행이나 인간의 마음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경험적 세계와 상징적 세계 모두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구성원의 참여 없이 일부 전문가에 의해 결정 운영되는 비민주성,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여건의 열악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지식의 변화가 빠른 정보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교양교육의 발전방향을 김수동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⁷⁾. 1) 지적안목과 정서순화를 하게 길러줌으로써 전인형성에 기여한다 2)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문직업교육의 토대를 제공해야 하고 청소년과 성인의 교양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 4) 교양학부설치, 5) 교양교육의 고전중심 교

5) 김정오, 『대학교양교육 개선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총서, 95-9, 1995, 56쪽.

6) 박종철, 「교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5, 1985, 83쪽.

7) 김수동, 「디지털 혁명시대의 대학 교양교육 개선방향」, 한국교육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전환기의 교육패러다임(I)』, 2000, 193-196쪽.

육 6)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교수목표로 두어야 하고 7) 주요 문제들에 대한 지적으로 사고하고 토의하며 표현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의 교양교육이 무미건조하거나 심하면 혼고학적 지식이나 아니면 각 학문분야의 할거주의 수준에 맴돌기 쉬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교양교육의 목표는 자아발전과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전인적 인격을 도야하고, 자연환경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자해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자질을 신장시키는데 둔다는 입장⁸⁾에 바탕 하여 1) 교양교육과정과 제도가 일관된 철학적인 비전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하며 2)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지덕체의 전인적 인격도야를 위하여 동서의 고전교육, 문화적 전통을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3) 교양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지원체제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4)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관계를 대 사회적 사명의 차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⁹⁾.

서구의 대학교육의 역사적 근거는 주지하듯 종교적 유산 그것이었다. 그것은 중세이래 대학들이 지성과 신앙이 결합체로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서구와 달리 우리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에서 종교교육은 종교적 배경을 지닌 특정 대학의 교책과목일뿐 일반적인 관심사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III. 대학에서 종교교육

우리나라 각 종교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국민의 고등교육에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높다. 4년제 대학(국공립27, 사립144, 교육대학11, 산업대학19, 각종대학3=203개교)의 경우 72개교로 전체 4년제 대학의 약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총109개교 중 14.7%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종립대학들이 사립대학(157개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1%, 전문대학은(사립전문대 94개교) 중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담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중등학교를 포함한 종교계 사학이 국민교육에 대한 부담율은 이보

8 국립사대 학장협의회 정책연구팀, 『국립사범대학 표준교육과정』, 국립사대 학장협의회, 2000, 88쪽.

9 김수동, 앞의 논문, 193-196쪽; 김정오, 앞의 논문, 57-61쪽.

10 은준관, 「대학교육에서 종교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0, 1984, 63-68쪽.

다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각 설립 종단별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의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의 종립 대학운영 현황

종교별	대학교	전문대학	신학교	계	비고
개신교	54	12	3	69	
가톨릭	8	3	-	11	
불 교	3	-	-	3	
유 고	1	-	-	1	
원불교	3	1	-	4	
대순진리회	1	-	-	1	
계	70	16	3	89	

* 한국교육신문사(2000), 한국학교명부에 근거한 자료임

먼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교과목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들 대학에서 종교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서울대학교>

교양교육과정의 목적을 보면 “교양교육 교과과정은 모든 교양과목을 학문관심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간 균형 있는 교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법 시행령제119조 제2항 및 학칙 제54조가 규정하는 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적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1997,서울대교과과정,viii)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 종교학 다음과 같은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문화와 불교(3학점), 한국사와 유교문화(3학점), 종교학개론(3학점), 종교와 문화(3), 인간과 종교(3), 종교와 여성(3), 종교와 예술(3), 종교와 동양문화(3), 세계종교입문(3), 선과 종교수행(3), 현대문화와 기독교(3), 유가철학(3), 불교철학(3), 도가철학(3), 등을 들 수 있다¹¹⁾.

<고려대학교>

1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1997, 7-9쪽,

종교의 철학적 이해(2)- 종교의 본질, 종교적 체험,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 등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찰한다.

서양기독교사(2)- 서양 고대말기부터 중세말에 이르는 기독교의 변천과정을 개관한다.

한국종교의 이해(2)- 한국 사회 속에서의 종교의 기능과 역사를 탐구하고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다.

현대사회와 종교(2) -종교가 현대사회 속에서 미친 영향과 기능을 논의한다.

<전남대학교>

현대의 종교(3)-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종교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하여 성실한 사회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케 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의 제 종교를 중심으로 각 종교의 형성배경, 변천과정, 경전을 토대로 한 근본사상, 그리고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의의와 과제를 논의한다.

<충북대학교>

종교란 무엇인가(2)- 종교본질 및 사회적 기능의 이해와 다종교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다. 나아가 종교경험의 다양성과 신앙 이성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다원사회와 세계종교(3)-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신념의 절대성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상호간 이해와 공존논리의 터득을 필요로 한다.

<조선대학교>

문학과 종교(2)

위와 달리 종립대학에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교교육 관련 교육과정 구조와 교양교육의 목적 그리고 전체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배분현황 등을 소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종교계 대학의 종교과목 운영현황

대학교	설립종단	교양이수학점구조	교양과목(학점)
계명대	개신교	45(공통교양: 10 정책교양: 10 교양선택: 12 학부기초교양: 15)	교필: 인간과윤리(2) 영어회화1(2) 영어회화2(2)의사표현의 이론과 실제(2) 컴퓨터일반(2)
			정필: 기독교사상의 이해(2) 사회봉사1(1)2 (1) 영어작문(2) 영어독해(2) 채플1.2(P)
이화여대	개신교	24(교양필수: 9 영역별교선: 15) 교선: 19	교필: 영어1(3)기독교와 세계(3)국어와 작문 (3)
			교선: 인간과종교(3). 기독교와 현대문화(3) 성서의 세계(2) 성서와 문학(2) 기독교와 문화(2) 기독교와 인간(2)
연세대	개신교	34(학부기초:10 학부필수: 5개영역 12학점 계열기초: 4과목/ 12학점	기초: 채플(0) 4학기, 기독교의 이해(3) 글쓰기(3), 영어강독1.2 또는 실용영어회화, 실용영작문(4)
가톨릭대	가톨릭	교필 23-25 자유선택 7개영역	교필: 국어작문(1) 한국학영역(문학)(2), 한국학영역(역사(2학점), 체육(1), 철학개론(1), 인간학1(2)2(2), 그리스도교개론(1)
성균관대	유 교	21- 27(기본교양:14- 16)	기교: 유학사상(2), 영어강독(2), 영어회화1(2)2(2)/ 컴퓨터과학1(2)2(2) 영역별 계열교양
동국대	불 교	22- 33(교필: 10- 21 교선: 12)	교필:자아와 명상1(P)2(P), 불교와 인간(2) 국어영역(2) 컴퓨터활용과 실습(4) 영어회화(4) 등
위덕대	불 교	33(교필:18 교선:15)	교필: 심학과실수1(P) 불교와 사회(2), 영어강독1(2) 영어회화(1), 전산학일반(3)

원광대	원불교	32-34(교필: 5)	교필: 종교와 원불교(3) 영어회화(1) 자율세미나(1)
			교선: 27-29
대진대(96)	대순진리회	42(교필: 19 교선: 29)	교필: 대학국어(2) 작문한문(2) 영어강독1(2)2(2) 영어실습1(1)2(1) 대순철학(3) 인문영역(3) 법정영역(택2과목6학점)

이상에서 보면 대체로 종교관련 교양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2-3학점과 학점 없이 이수하는 형태를 요구하고 있고 대학에 따라서는 선택과목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교과목이 명시적으로나마 어떤 목적아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보면 대학에서 종교에 관한 서술의 특징은 전체과목수의 40.3%가 종교를 철학이나 사상의 맥락 또는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발견된다. 특정 종교에 대한 소개만 또 달리 표현한다면 선교 혹은 포교적 목적에서의 특정종교의 자기주장의 내용이 편중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에 관한 관심이 인류학 또는 민속학의 분야나 맥락에서 상당한 비중을 안고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대학차원에서 종교를 보다 서술적으로 파악하면서 종교에 대하여 근원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려는 이른바 종교학적 접근이 주목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¹²⁾.

IV. 대학에서 종교교육 사례: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정신 아래 1916년 한국에서 출현한 종교로서 교단이 지향할 삼대사업 목표를 정하고 이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화, 교육, 자선 등이 그것이다. 원불교의 교육이념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바탕 하여 인류를 두루 교육함으로써 시대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제생의세의 사명을 실현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있다”¹³⁾ 그러므로 원불교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은 부처와 같은 성품을

12 정진홍, 「종교교육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4, 연구논총 1990-12, 1990, 291-293쪽.

지니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교육은 평생 나아가 영생토록 이뤄져야 하는 과업으로, 영육이 조화롭게 발달된 전인적 인격체를 도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이념은 교단에서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이념적 기초나 목적은 개교정신과 법인의 정관, 학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학의 건학정신을 보면 원광대학교는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개교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이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새문명사회 건설의 주역 양성을 건학의 기본 정신으로 한다”(학교법인 원광학원정관)

이와 같은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보다 간명하게 표현된 것이 교훈인 “지적검수, 도의실천”이다. 지성과 덕성을 겸하여 함양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의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목적을 구체화한 것이 대학교육목표인 학술탐구, 덕성함양, 사회봉사이다. 따라서 원광대학교의 교양과목의 운영도 이런 교단의 건학이념과 대학교육의 목표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원불교에서 설립 운영하는 대학은 원광대학교 외에도 영산원불교대학교,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원광보건대학 등이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과로서 종교와 원불교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이다. 나머지 대학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전자 중 원광대학교에 국한하기로 한다. 원광대학교의 종교교육이 일반대학의 교양과목으로서 종교 교과목 운영의 사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원광대학교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종교 관련 교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의 기능과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등종교의 모습을 찾아낸다.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종교간, 종교인간의 갈등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원불교의 기본교리와 사상을 교육하여 새시대 새종교의 모습과 역할을 정립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진리임을 인식하고 성자정신으로 구현에 종교적 공조정신을 함양시킨다(종교와 원불교, 2000교육과정 23쪽).

선의 이해를 통하여 현대산업사회에서 잃거나 약화되어 가는 인간의 심성을 되찾아 지

13 원불교, 『원불교 헌규집』, 원불교 교육규정 제2조, 1992년 개정, 237쪽.

키게 하고 또한 그 힘을 길러 생활속에서 학문을 하면서 심신작용을 바르게 건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나날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이론, 토론, 실습으로 강의함(현대사회와 선, 2000교육과정, 26쪽).

다종교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종교현상의 문제점들의 파악하고 종교의 본질과 중심기능 및 사명을 중심으로 종교적 전망에 대해서 탐구, 정리한다(현대사회와 종교, 2000교육과정, 26쪽).

1. 종교관련 교양과목 운영현황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종교관련 교과목으로는 “종교와 원불교(필수, 3학점), 현대사회와 종교(선택, 2학점), 선과 인격수련”(선택, 2학점) 등이 있다. 이들 교과목의 필수와 선택, 학급수, 평균수강인원, 담당교수 등 운영현황을 제시하면 다음<표 4>와 같다.

<표 4> 종교관련 교양 교과목 운영 현황(2000-2학기 기준, 주야포함)

교과목 명	구 분	학점	분반수	평균수강인원(총인원)	담당교수 수
종교와 원불교	교양필수	3	27	76명(총 2,052)	15
현대사회와 종교	교양선택	2	02	38명(총 75)	1
선과 인격수련	교양선택	2	10	64명(총 639)	7
현대사회와 선	교양선택	2	02	80명 (총 160)	2

위 중에서 종교와 원불교는 2000-1학기의 경우 총 운영반수가 28개반 총 수강인원 2,512명을 학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학년전체 신입생이 학기로 나뉘서 수강하는 셈이 된다. 한편 2000-1학기에 현대사회와 종교는 주야 3개반에 총 98명이 수강하여 클레스당 약 33명이, 선과 인격수련은 10개반에 총 668명이 수강 클레스당 약 67명이 각각 수강하였다. 따라서 수강인원의 차이는 필수, 선택과목간의 차이 말고도 수업요일시간의 영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와 선은 금요일에 수업이 배정된

반이 화요일에 비해 현저하게 수강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담당교수에서도 일반 교양과목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담당교수에서 전임에 비해 시간강사의 부담율이 높은 편이다.

2. 교재의 개발

현재 교양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종교와 원불교”에 관한 교재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최근에 원불교학교재연구회에서 펴낸 『종교와 원불교』를 들 수 있다. 이 교재는 총 306쪽,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의 구성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편 인간과종교(1.인간과 종교/2.종교의 본질과 기능/3.현대사회와 종교) 40쪽.

제2편 한국종교의 이해(1.무교/2.불교/3.유교/4.도교/5.기독교/6.이슬람교/7.한국의신종교)83쪽.

제3편 원불교의 역사와 기본교리(1.교조와 역사/2.원불교의 개교와 그 이념/3.일원상의 진리 4.감사보은의 길-사은/5.인격완성의 길-삼학)88쪽

제4편 원불교 사상의 전개(1.평등사회의 구현-사요/2.삼동윤리/3.원불교의 선사상/4.참회와 기도/5.원불교의 인간이해/6.죽음과 해탈/7.선과 악의 문제/8.한민족의 통일의 과제와 미래 전망)80쪽.

대체로 그 내용은 인간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가, 세계 각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 그리고 원불교 역사와 기본교리 및 사상의 전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과 인격수련』 교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현대사회와 선(1. 현대사회와 선의 필요성/2. 선이란 무엇인가?)8쪽

II.선의 방법(1.종래의 선법/2.원불교의 좌선법/3.염불, 좌선,무시선의 관계/4.선과유무념 공부)66쪽.

- III 원불교 단전주 선법의 특징(1.종래의 호흡법/2.원불교 선의 호흡법)20쪽
- IV 선의 진경에 이르는 길(1.말씀없는 말씀/2.없는 세계의 발견/3.스트레스와 선/4.쉬는 선 5.발아래를 비쳐라/6.무념과 유념/7.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 8.소길들이는 선/9.목우도의 선세계)40쪽.
- V 무시선법의 강령(1.마음의 습관을 극복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공부/ 2.자성의 체와 용을 활용하는 선/3.마음의 본래를 떠나지 말자/4.경계에 흔들리지 말자 5. 환경과 선/6.생활하는 선/7.마음의 자유를 얻는 선/8.백천삼매를 얻는 선 9.무시선의 강령)26쪽.
- VI선과 마음공부(1.선공부의 의미/2.선과도/3선의 원리와 참자야/4.선공부는 큰 공부) 12쪽
- VII선과 삼학공부(1.삼학의 의미/2.선과 삼학의 생활화/3.삼학은 만사의스승/4.일상수행의 요법)10쪽
- VIII선과 평화(1.고뇌와 무명/2.무념과반조/3.마음의 평화/4.선과용심법/5.세상은 복의 밭)12쪽.
- IX선체조의 의미와 실제(1.선체조의 의미/2.선체조 안내/3.선체조(1)/4.선체조(2) (총242쪽)

그런데 다른 교양과목에도 예외는 아니지만, 교재에 따라 엄격하게 수업이 진행되기 보다는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재의 내용을 단일화하여 운용하기 보다는 과목에 따라 학생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는 있다.

3. 종교관련 교과목의 수업계획

실제로 명시된 교과목의 수업목표와 달리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마다 다르게 교과수업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은 운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명시적인 수업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수업계획서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임의 표본 추출하여 조사해본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종교와 원불교>

(1) 수업목표 및 내용: 종교의 본질, 기능 및 주요 종교와 원불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 인생관 확립에 도움을 준다.

A: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본질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종교에 대한 이해)

B: 주요 종교의 이념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종교관 인생관을 확립한다.(주요 종교에 대한 이해)

C: 원불교의 주요 사상과 특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신앙 수행의 길을 살펴본다.(원불교에 대한 이해)

(2) 수업진행방법: 대체로 강의방식과 학생의 발표 토론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장답사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와 종교>

(1) 수업목표 및 내용: 수업목표는 종교현상에 대한 이해, 종교일반에 대한 폭넓은 교양 미래 지향적 인 종교적 삶의 태도를 기른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종교간 대화, 종교다원주의와 보편종교, 종교학의 영역, 종교정의 체험, 종교적 행위의 여러 형태, 채식과 종교, 기현상과 기과학, 종교수행의 원리 방법, 종교심리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수업진행방법: 강의 토론, 문답, 조별 발표, 체험사례발표, 수련, 시청각 교육전문가 초빙강의 현지방문조사 등으로 되어 있다.

<선과 인격수련>

(1) 수업목표 및 내용: 심신간 건전한 인격형성, 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아실현, 구체적인 하위 목표로는 선의 원리와 방법이해, 마음공부의 이론과 실제, 선수행을 통한 건강한 정신수련과 인격 수련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

(2) 수업진행방법: 선수련 실습(50%), 강의 및 토론(50%)로 진행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종교와 원불교 과목은 종교일반 및 주요 종교와 원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종교관, 인생관 확립을 목적으로, 현대사회와 종교는 종교현상에 대한 이해, 종교일반에 대한 폭넓은 교양, 미래 지향적인 종교적 삶의 태도를 목적한다면, 선과 인격수련은 선의 이론과 실제, 건강한 심신의 수련을 통한 인격수련을 목적하

고 있다.

4. 종교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대학에서 종교관련 교과목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교수와 학생의 반응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수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즉, 강의평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물론 이런 접근방법은 신뢰도와 타당도 등 척도상의 문제 외에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시행 뿐만 아니라, 실시한 다음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편이다. 다만, 여기서는 강의평가의 결과를 분석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종교관련 교과목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종교 관련 교과목 특히 필수로 지정된 과목에 대한 반응도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손충기의 연구¹⁴⁾에 의하면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교양과목에 대한 수업평가 결과 10개 과목 및 영역별 전체 점수에서 “종교와 원불교”는 8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의 적절성에서는 9위, 수업운영의 충실성에서는 5위, 학생 학습활동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10위, 교수의 수업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8위로 각각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종교와 관련된 교양과목에 대해 학습의 충실도를 자극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학급규모별 차이에서는 학급규모가 틀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강사의 수업이 전임에 비해 교양과목으로서 적절성, 수업운영, 학생학습활동의 충실도, 학생평가의 총점 등에서 유의한 파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종교 교과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일반교과와 같이 학습자, 교수, 그리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 환경, 교우집단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한 영향의 결과로 볼 수는 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변인에 의한 영향이 이런 결과를 자아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묵시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가르치는 사람 못지 않게 학습자 또는 가정의 종교적 배경이다. 사실 종교적인 태도나 성향은 가정에서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형성되어 이런 종교

14 손충기, 「원광수업평가 척도요인 구조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17, 1998, 23-33쪽; 「대학 교양과정의 적절성과 수업효율성 연구」, 원광대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19, 1998, 62-99쪽,

관이 교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므로 강의평가의 결과만 가지고 수업의 결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어느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야 할 과제이다.

두번째로 대학생들의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태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탈종교현상의 배경을 알아보는 요인으로 우선 수강 학생들의 종교를 둘러싼 가치관, 수업평가에 나타난 수업과 관련된 변인 등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대체로 종교관련 필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일학년이기 때문에 본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1999년도, 2000년도에 신입생들의 특성에 관한 조사분석¹⁵⁾ 결과 중에서 종교관련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면 확인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대학 신입생들의 가치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응답	1999년도(전체%)	2000년도(전체%)	비고
자신능력발휘	36.4	44.2	
경제적 안정	17.1	11.9	
취미,예술 즐기는 생활	11.6	6.3	
화목한 가정	9.2	9.7	
타인사랑봉사	8.5	12.2	
건강한 삶	5.9	6.2	
타인의 존경	3.3	2.3	
좋은 친구	3.2	3.2	
종교적인 삶	1.4	1.1	
국가발전	.8	.3	

다음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계층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치인(49.1%) 경제

15 손충기·이영희, 「1999학년도 신입생의 특성연구」, 원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20, 1999.12, 18쪽.; 『2000학년도 신입생의 특성연구』, 원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0, 25쪽.

인(12.1%) 지식인(11.7%) 언론인(9.3%) 학생(4.5%) 재야인사(2.4%), 종교인(2.0%), 예술인(2.0%), 법조인(1.4%) 노동자(1.4%)순으로 반응함으로써 최근 대학의 신입생들에게 종교적인 삶이나 종교지도자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교 1997년도 신입생의 종교분포도에서도 기독교(30.9%), 천주교(9.9%), 불교(8.8%), 유교(4%), 원불교(4.0%), 기타(5%), 종교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45.5%)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다양한 종교분포와 아울러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연령별 종교인구조사에서도 20세-24세까지가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 연령층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로 반응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¹⁶⁾.

이와 달리 井上順孝¹⁷⁾가 한국학생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종교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면 관심있다(60%), 관심없다(35.3%)로 나타났고, 종교적 신앙을 권유한 배경으로는 부모형제 등 가족이(52.0%), 자신이 솔선해서가(17.7%)로, 신앙의 열심도에서 열심이다(16.5%), 보통(48.2%), 그렇지 않다(3.13%) 무응답(4.0%)순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인다.

셋째, 종교관련 교과목 중 필수와 선택간에 학생들의 반응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같은 종교관련 교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필수에 비해 선택과목은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2000학년도 2학기 본교 종교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강의평가 질문지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6개문항은 공통사항 나머지는 수업목표 및 내용의 구성, 수업의 전개, 과제물 및 평가, 강의에 대한 교수의 태도, 학생의 수업충실도 등을 하위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응답치는 5점만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인 종교와 원불교(주간, 24개반, 야간강좌 4개반)반 평균은 4점 만점에 3.73 정도로 나타난 반면, 선택과목인 현대사회와 종교(3개반)는 평균 3.98, 선과 인격수련(10개반)은 반평균 3.96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필수과목에 비해 선택과목에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양 선택과목인 “선과 인격수련”, “현대사회와 선” 교과목을 운영하는데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점이 주목된다. 김복희 교수는 2000학년도 1학기에 344명을 대상으로 선과 인격수련, 현대사회와 선 이라는 교과목에서 학생들을 대상

16 문화체육부,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부, 1997), 11쪽.

17 井上順孝, 『韓日學生 宗教意識調査 報告』, (東京: 國學院大學 日本文化研究所), 1999.10, 35項.

으로 한 마음 공부의 사례¹⁸⁾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마음공부 수업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1) 선과 요가-수업시작후 10분 정도 요가를 하며 몸을 고른다. 2) 5분 명상 3) 선 체험 4) 경계찾기 5) 은혜발견하기 6) 유무념 7) 마음공부 전해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요인이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 요인인가를 확인하기 해서는 좀 더 추후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만,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 교과목이 이론보다는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실습과 발표, 토론위주로 진행되는데 기인함을 알 수 있어 향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 및 인성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음 학생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그 동안 선에 대해 참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 그 동안 나는 언제나 나약하고 자신감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쳐지는 가에만 의식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나를 꾸미고 단장하는데 종일 보낸 것 같다.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내발을 보며 고행을 하는 나의 신체에 일부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느끼고 안타까워하며 고마워하며 같이 즐거워하는 내 자신을 문득 발견했다. 언제부터 바뀐 것일까?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즐겁게 웃으며 살아가는 나

-- “학생의 과제물”(생명과학부 구봉주)

V. 결 론

이 논문은 첫째,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현재 어떤 목적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종교적 배경을 지닌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써 종교 관련 교과목의 개설목적,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원광대학교의 사례를 통하여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교과목의 성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과제를 찾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교과과정 및 문헌과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김복희, 「마음공부를 통한 대학생의 인격수련」, 원광대학교, 『한국대학의 도덕성 무엇이 문제인가』, 도의실천 학술세미나 및 사례발표회 자료, 익산: 2000, 41-53쪽.

첫째, 우리 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적은 전공의 기초도야, 균형 있는 전인적 인격 도야, 그리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라는 목적 아래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선택이수배분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교양교육목표의 명료화, 대학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교양과목의 개발, 지원체제 확립, 등이 요청된다.

둘째, 종교적 배경을 지닌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교육은 대체로 특정 종교적 배경아래 필수와 선택과목을 공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광대학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필수1과목 선택 3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바, 전에 비해 시간강사의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교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강의평가를 통하여 확인된 바로는 필수과목에 비해 선택과목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이론보다 실천위주의 접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종교관련 교과목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교의 학생 종교분포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원불교순으로 나타나는 다종교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종교교육을 접근할 것인가는 과제이다.

그 밖에 대학에서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점을 제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육의 이념과 현실간의 갈등이다. 서구의 종교적 전통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일뿐더러 때로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아래 국공립대학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일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종립대학에서는 필수와 선택과목을 공히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다종교문화속에서 점차 탈종교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설립 당초의 교양교육의 목적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세속화의 길을 택할 것인가의 갈등이 있다. 만일 전자만을 고집하면 현실적으로 대학의 재정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는 과연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대학에서 종교교육과 종교교화간의 논쟁이다. 정진홍(1990)은 대학의 종교교육

실태를 분석하면서 대학에서 종교에 관한 서술의 특징을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다¹⁹⁾. 한마디로 대학의 전체 종교관련 과목수의 40.3%가 종교를 철학이나 사상의 맥락 또는 분야에서 다루고 있지만, 종교문화의 실제와의 괴리나 당혹을 일으킬 수 있고 특정 종교만의 서술이나 표현이 선교 혹은 포교적 내용에 편중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종교교화의 관점을 극복하는 논리로써 윤이흠은 종교문화교육을 제기한 적이 있다²⁰⁾. 만일 종단교육과 종교문화교육을 혼돈하면 종단내의 대외 교육인 이른바 특정 종교에서 설립 운영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1999년 코소보, 동티모르 사태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말루쿠주 종교분쟁도 이슬람문명과 기독교간의 분쟁의 사례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종교간의 갈등과 반목은 국내에서도 단순상 훼손,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불교의 훼손사건 등 이종교간의 갈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 우려의 수준을 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각 계층간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에 바탕한 교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대학에서 종교교육은 종교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본질적 이해를 기저로 하여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원적으로 종교교육은 현실의 상대적이고 찰나적인 효용성이나 실익에만 맴돌면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이 실현해야 할 가치 가운데는 이런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원하고도 무한 절대적 가치의 차원이 있음을 알게 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의 정조를 함양하여 궁극적이고도 미묘한 세계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진선미의 총체적 승화인 성의 차원에서 인격완성을 이루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²¹⁾.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종교교육이 자연스런 삶속에서 신의 외현으로 받아들이는 것, 세계의 근원과 방향에 관심을 갖는 마음과 감정을 기르는 것²²⁾이라면 종교교화와 혼돈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종교적 센스를 길러주는 교육, 이른바 인간의 내적 종교성의 발현이라는 것을 종교에 대한 안목만을 길러주는 것은 종교교육에 필요한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감성은 종교를 받아들이는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한갓 종교학적 접근 자체만

19 정진홍, 앞의 책, 291-293쪽.

20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3, (서울: 집문당, 1991), 332-335쪽.

21 박선영, 「종교교육의 가치와 사회적 평가」, 한국사립학교교장협의회, 《사학》 1980, 여름호, 43쪽.

22 이은선, 「종교교육 의미와 필요성」, 한국교육신문사, 《새교육》 458, 1992.12, 46쪽.

으로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체험을 통해 어떻게 느끼게 하고 공감하도록 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과 또는 예술과 관련하여 종교교육을 시도하는 대안적 종교교육모형”은 주목할 만 하다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전인교육차원에서 종교교육을 강조한 小原國芳은 종교경험도 인간심정의 통합된 인격경험으로 인정하고서 “종교교육이란 정신생활의 전 국면을 적절하게 신장시켜주는 것”²³⁾으로 본 점이 그렇다.

셋째, 종교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이다. 이제까지 종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문제로는 역시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와 더불어 어떻게 그런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바로 현실적인 제반조건 통제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를테면, 대학의 교양과목으로서 종교교과의 목표 실현을 위해 교수요원의 확보, 교과내용의 구성과 조직,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걸맞은 교수매체 및 접근방법의 고안, 등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런 문제 외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과목들간의 균형문제, 교수요원 수급, 교과내용의 구성 및 수업방법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그 밖에 대학에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서는 필수에 대한 부담, 강의주제와 내용간의 불일치, 강사의 일방적 주입식교육, 난해한 지식열거,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의 부재, 현실과의 괴리문제, 등은 종교교과에도 예외의 문제일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 고영철, 한국의 대학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1985.
 구정화, 한국과 영미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95.
 김복희, 마음공부를 통한 대학생 인격수련, 원광대 도의 실천 엑스포2000, 학술세미나 및 사례발표회. 미간행 발표물, 2000.

23 小原國芳(諸葛森 譯), 『전인교육론』,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5), 41-53쪽.

- 김성재, 「종교와 교육 관계고찰」, 한국교육신문사, 《새교육》 458, 1992.12.
- 김수동, 「디지털 혁명시대의 대학교양교육혁신방향」, 2000년도 교육학회 년차대회 발표논문, 2000.
- 김중서, 「종교교육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4, 1990.12.
- 김진만,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소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2, 1983.
- 박선영, 「종교교육의 가치와 사회적 평가」, 한국사립학교교장협의회, 《사학》, 1980, 여름호.
- 박아청, 「교사양성에 있어서 교양과목의 본질과 발전과제」, 한국교육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 1997.
- 박영순, 「인문과학 분야에서의 교양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22, 1986.
- 박종철, 「교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5, 1985.
- 반덕진, 『대학과 교양교육』, 서울: 신광출판사, 1999.
- 小原國芳(諸葛森 역), 『전인교육론』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 손충기, 「대학 교양과정의 적절성과 수업효율성 연구」, 원광대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19, 1998.
- _____, 「원광수업평가 척도요인 구조연구」, 원광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17, 1998.
- 손희권, 「국교설립금지조항에 비추어본 국공립학교에서 종교활동의 합헌성여부에 관한 미국대법원판례분석」, 안암교육학회, 《안암교육학연구》 5-2, 1999.
- 송석우, 고등교육에 있어서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1987.
- 우준관, 「대학에서의 종교교육」, 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教育》 10, 1984.7.
- 유상근, 『대학교육과 교양교육』, 서울: 명지대학출판사, 1982.
- 이돈희, 「교양교육의 이념과 목적」, 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22, 1986.7.
- 이성호,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 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59, 1992.
- 이은선, 「종교교육 의미와 필요성」, 한국교육신문사, 《새교육》 458, 1992.12.
- 이은진, 「대학교양교육의 운영실태와 개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986.
- 정대현, 「교양교육의 개념」, 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2, 1983.
- 정식영 외, 「대학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논총》 12,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68.

- 정진홍, 「종교교육실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4, 1990.12.
- 조무남, 「대학교양교육의 개편방향」, 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10, 1984.
- 조미애, 대학의 교양교육성격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1990.
- 조용길, 「중단학교에서 바람직한 종교교육」, 한국교육신문사, 《새교육》 458, 1992.12.
- 최대권, 「대학학부 교육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부 '96정책연구보고서.
- 한내창, 「대학생들의 종교적 사회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14, 1997.
- 함세정, 대학교양교육의 이념적 준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92.
- David Carr, Knowledge and Truth in Religious Education, i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28-2, 1994.
- Hudson W D., Is religious education possible, in *New essay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by Glen Langford, D J O'Connor, R.K.P, 1973.
- Michael Leahy and Andrew Davis, Religious Doctrines and the Closure of Minds, i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1-2, 1997.
- Peter Gardner, Religious upbringing and the liberal ideal of religious autonomy,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by P.H. Hirst and P White, RKP, 1998.